포항 선수단이 울산으로 원정 온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울산 | 뉴시스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더블'(정규리그와 FA컵 2관왕)을 달성한 포항 황선홍 감독이 우승트로피에 감격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울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여유와 포용…'황선홍 스타일' 열매 맺다

6년만에 최고 명장에 오른 비결

외국팀 연구하며 다양한 전술 공부
바르샤 패스축구에 속도감 접목 성공

부산 사령탑으로 출발 숱한 시행착오
친정 포항 복귀 후 장기적 계획 수립

선수 눈높이 중시…창의적 발상 유도
적절한 권위와 소통으로 선수들 감화

포항 스틸러스 황선홍 감독이 감격스런 첫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08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6년 만에 이룬 달콤한 열매다. 2013년 FA컵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정상에 서며 '더블(2관왕)'을 차지했다. 1996년 FA컵 창설 이후 단 한번도 정규리그와 FA컵을 동시에 거머쥔 감독은 없었다. K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명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황 감독의 리더십을 들여다봤다.

●경험 더해진 '포용의 리더십'

황 감독은 공부하는 지도자다. 매력적인 바르셀로나(스페인)의 패스축구에 한국축구의 장점인 속도감을 덧씌웠다. 일본 J리그를 눈여겨 보면서 다양한 전술을 공부했다. 배움은 지도자의 전제조건이다.

황 감독은 이상적인 지도자 상(象)으로 '합리적인 리더'를 꿈꾼다. 만물의 다툼은 누군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반목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한다. 그것을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가 그리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황 감독은 "지도자는 서로 이해하고 적정선을 찾아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해서 한 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값지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바라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부산구단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독선적이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는 "전혀 강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강성이 아니다(웃음). 선수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 선수들에게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다보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부산에서 맞은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 모두 12위에 그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2010년 들어 변화가 생겼다. 선수들에게 먼저 요구하기보다 선수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 결과 FA컵 준우승과 정규리그 8위로 올라섰다. 황 감독은 "부산 선수들에게 안 맞던 옷을 입히려 했다"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황 감독은 2011년 '친정' 포항으로 둥지를 옮겼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감독이 됐다. 경험이 쌓이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쌓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급격하게 변화를 줬던 예전 모습과 이별했다. 선수들의 눈높이를 중시했다. 나무보단 숲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했다. 선수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했다. 이명주, 고무열 등이 부쩍 성장했다. 선수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내가 욕심을 가지면 선수들이 부담을 갖고 압박을 받는다. 즐겁게 축구하자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험이 더해져 '포용의 리더십'이 빛을 발휘했다. 포용은 적절한 권위(힘)와 소통(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 든든한 두 다리로 팀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감독으로서 중심을 잡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줬다. 잘못을 저지른 선수에게 시간을 주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했다. 며칠 뒤 선수와 대화를 나누며 잘못된 점을 집어줬다. 반복된 실수를 막기 위함이었다. 선수들과 수시로 미팅을 가지며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장려했다. 선수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도록 이끈 것이다. 생각이 바로 잡혀야 경기에서도 예측과 창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선수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냉철한 상황분석과 자신감이 밑바탕이었다. 황 감독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는 선수들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됐다. 정규리그와 FA컵 우승의 금자탑으로 되돌아왔다.

울산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 포항 우승하기까지

챔스리그 조기 탈락이 오히려 약
정규리그·FA컵 전력 집중 계기

9월까지 선두 달리다 2위 추락…즐기는 축구로 다시 6연승

포항 스틸러스는 올 시즌 새로운 목표 설정에 고심했다. 작년 FA컵 정상에 섰고, 시즌 후반부 폭발적인 힘을 내며 정규리그를 3위로 마쳤다.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들로 이뤄낸 멋진 성과였다. 모기업이 예산을 줄이면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형편이 못 됐다. 2013시즌도 국내 선수들로 옅은 스쿼드를 꾸려야 했다.

꾸준한 경기력이 필요한 정규리그보다 단기간 승부를 볼 수 있는 토너먼트 대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FA컵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황선홍 감독은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홈&어웨이로 열리는 챔스리그 조별리그 반환점을 돌며 1승2무를 기록했다. 16강 진출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홈으로 불러들여 1-1로 비겼다.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황진성이 빠른 시간 동점골을 넣었다. 포항은 거센 공세를 퍼부었지만 추가골을 얻지 못했다. 이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된다. 이어 열린 베이징 궈안 원정에서 0-2로 졌다. 올 시즌 승승장구하던 포항의 시즌 첫 패배였다. 분요드코르와 마지막 홈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 박성호의 동점골이 터졌으나 경기를 되돌리긴 늦은 시간이었다. 1-1 무승부. 포항은 승점7(1승4무1패)로 조별리그 탈락했다. 황 감독은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리그에 집중하기로 했다.

챔스리그 탈락은 포항에 큰 약이 됐다. 정규리그와 FA컵에 모든 신경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포항은 10월19일 FA컵에서 전북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사상 첫 FA컵 2연패였다.

흐름은 작년을 빼닮았다. FA컵 우승 이후 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며 울산과 최종전을 남겨뒀다. 울산은 11월27일 부산 원정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자력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울산이 1-2로 덜미를 잡히면서 흐름은 포항에 완전히 넘어왔다.

우승까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포항은 9월까지 줄곧 선두를 유지했으나 폭발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치고나갈 상황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8월28일과 9월1일 연속해서 열린 울산과 부산전에서 올 시즌 첫 2연패를 당했다. 울산과 승점차가 1로 좁혀졌다. 상위그룹 첫 경기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했지만 이후 5경기에서 4무1패로 부진했다. 울산에 선두를 내줬고 2위로 내려앉았다. 시즌 첫 추격자의 입장이 됐다.

황 감독은 선수들에게 냉정함을 강조했다. 선수들도 FA컵 우승으로 부담을 떨치고 경기를 즐겼다. 정규리그 최종전까지 6연승을 거침없는 행보를 맞이하며 기적과도 같은 역전 우승을 썼다. 사상 첫 FA컵과 정규리그 동시 석권이었다. 울산 | 박상준 기자

"이런 게 기적이 아니면 뭔가"

■ 황선홍 감독 일문일답

팀정신·조직력 극대화가 우승 비결
더 큰 목표 위해 외국인 선수 필요해

너무도 극적인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포항 황선홍(45) 감독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듯 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 1무2패로 열세였던 울산을, 그것도 적지에서 꺾고 우승 트로피를 챙긴 황 감독의 목소리는 공식 인터뷰 내내 떨렸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내일자(2일)신문에 (포항 우승 기사가) 크게 실린 걸 보면 좀 실감날 것 같다"고 했다.

-역전 우승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정말 기적이 벌어졌다. 추가시간 4분이 주어진 뒤 '우리에게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

-포항의 힘은 뭔가.

"팀 정신, 조직력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랬다. 이를 극대화시킨 게 컸다.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선수, 감독 통틀어 첫 K리그 제패다.

"1995년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이 전부였다. FA컵 우승 때와 느낌이 비슷한데,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얼마나 큰 위업인지 실감할 것 같다."

-언제 정규리그 제패를 예감했나.

"솔직히 우리가 정규리그 초반에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는 크게 불안했다.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FA컵 우승을 하면서 선두권과 격차는 좀 났지만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후반전에 빠른 승부수를 띄웠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다. 전반에 골을 넣으면 제로(0) 톱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 본래 후반 중반에 전략을 바꾸려 했지만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박성호(후반 8분)를 빨리 투입했다."

-역사적인 첫 더블(2관왕)이다.

"올 시즌 목표가 '좋은 축구'였다. 솔직히 예상할 수 없는 성과였다. 과정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했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내용에 집중했고, 우리가 가고자하는 바를 보여줬다."

-외국인 선수가 없었다. 팀 개편 계획은.

"(용병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부상, 경고누적 등 여러 변수 속에 꾸준한 성과와 더욱 큰 목표를 위해서는 꼭 보강해야 한다. 스쿼드가 두터워야 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팬들은 포항에 더 많은 걸 원할 거다.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프로팀 감독으로 아시아 클럽 무대 도전을 꿈꿨다. 이제 그 기회가 왔다."

울산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BIG 마우스

●그냥 발밑에 공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 찼죠.(포항 김원일. 결승골에 본인 스스로도 계속 얼떨떨하다며)

●골이 터진 순간 아~ 내가 넣을 걸 하고 후회됐다(웃음). 결정적 상황에서 눈을 감는 바람에 공이 뒤에 있던 (김)원일이에게 넘어갔다. 원일이가 침착하게 잘 넣었다. (포항 수비수 김광석. 김원일의 결승골 직전 자신에게 왔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짜릿한 결승골, 그리고 오늘의 승리가 믿기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우승컵 2개를 들 수 있어서 기쁘다.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에 영 플레이어상도…. (포항 공격수 고무열. 아직도 우승이 실감나지 않는다면서 벅찬 표정을 하며 내친김에 영 플레이어상을 조심스럽게 받고 싶다고)

●(김)원일이 너가 어떻게 후반 추가시간에 그렇게 극적인 골을 넣을 수 있니. 머리도 아니고 발로 말이야(웃음). (포항 공격수 박성호. 올 시즌 2차례 득점에 그친 수비수 김원일이 자신의 패스를 받아 3호 골이자 결승득점을 넣은 데 축하하며)

●저 골 안 넣었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웃음). (김)원일이형이 넣은 거예요.(결승골 장면에서 신영준과 김원일이 겹치며 득점자에 대한 혼선이 생겼다. 취재진이 신영준에게 득점 상황을 묻자 자신의 골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울산 김신욱. 득점왕도 팀 우승도 실패한 최악의 결과가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솔직히 울산이 우승하길 바랐죠. 미안하잖아요.(부산 박종우. 11월27일 정규리그 울산과 홈경기를 부산이 이기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울산에 미안했다며)

●심리적으로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했나보다.(울산 김호곤 감독.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후반 내내 포항에 밀린 이유에 대해)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울산의 모 선수. 포항 서포터스가 그라운드에 물병을 집어 던지며 추태를 부리자)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574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14	15	16	19	25	43	2

1등 총당첨금 | 1 3 | 9 3 0 | 3 6 9 | 8 7 6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조건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2 명	6,965,184,93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33 명	70,355,404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259 명	1,844,10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68,910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184,428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3.11.30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11년 7월부터 시행, 422회차('11년 1월 1일 추첨)부터 소급 적용)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